

월요광장

‘소셜 믹스’ 거주 혼합을 넘어 사회 통합으로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광주시의 공공 임대 주택이 ‘소셜 믹스(Social Mix)’로 조성된다는 소식이다. 가뜰이나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문제로 연일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갈등과 대립의 뉴스들로 마음이 혼란스러운 시기라 반가운 마음이다. 무엇보다 사회 통합 차원에서 그렇다.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다. 소셜 믹스란 ‘사회적 혼합’ 또는 ‘계층 혼합’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주택 정책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를 함께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함으로써 주거 격차 해소 및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이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양과 임대 세대 간 갈등과 제도의 혼선, 단지 관리의 비효율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셜 믹스의 효시가 일컬어지는 주거 단지는 1894년 영국 버밍엄에 위치한 본빌(Bournville)에 조성됐으며 주거 비용과 주택 크기에서 다양성을 반영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1980년대에 빈부 격차 심화 및 주택 유지 부족 등으로 인해 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서민 주거 지역의 위생·교육 환경이 악화되자 해결책으로 소셜 믹스가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 임대 주택단지 등이 대단위 형태로 공급되었다. 이 같은 대단지 형태의 공급은 주거지 분리에 따른 사회 계층 분화를 초래하고 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임대 단지의 신규 입지 기피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 2003년 서울시의 공공임대 10만 호 건설계획 등을 통해 임대와 분양 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소셜 믹스 정책을 도입한 후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에 적용하고 있지만 처음 목적인 바를 충분히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포털 사이트에 소셜 믹스를 검색해 보면 사회 통합보다는 거주민 사이의 차별과 갈등을 다룬 기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혼합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정, 체육시설, 주차 등 공용 편의시설 이용은 물론 단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도 분양과 임대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다는 내용들이다.

원인으로는 분양 및 임대 주택에 적용되는 관리법이 상이하여 두 개의 법 적용 과정에서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이원화된 제도로 인해 세대 간 잡수익 배분, 커뮤니티 시설 관리비 공동 부담 문제 등 아파트 단지 관리 방안을 두고 주민 간 혼선과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또한 중소기업육진법에 따라 공공 임대 물량에는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건축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아파트 한 등에 무작위로 임대와 분양을 섞는 것이 어려워 분양동과 임대동을 분리하여 단지를 건축하는 경우, 이러한 외관의 식별 가능성이 다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공 임대 주택을 소셜 믹스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광주시의 정책은 현재 양적 공급에 치우쳐 있는 공공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 복지 우선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했던 공공 임대 주택의 차별적 요소를 퇴출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업그레йд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 위주의 규모와 품질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공급과 관리 체계 개선, 공개 추첨제에서 임대와 분양이 동시에 참여하는 차별 철폐,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강화 등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고 실현될 것이다.

이를 위해 소셜 믹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분양 및 임대 세대 간의 상호 융화를 위한 관리법 정비 그리고 건축 및 설계 기술 향상과 같은 기술적 한계 극복에 힘쓸 필요가 있다. 소셜 믹스가 단순한 거주 형태의 혼합을 넘어서 공동체적 연대를 구축하는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민선 8기 광주 공공 임대 주택의 ‘소셜 믹스’를 향한 도전이 갈등으로 분열되는 사회에서 통합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수필의 향기

소리 없는 응원가



박용수 광주동신교 교사·수필가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다. 창밖을 보니, 제법 나이 먹은 여인이 교문에 이마를 대고 기도를 하고 있다. 오래도록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그 시간에 문 너머 한 아이 역시, 조용히 목상에 잠긴 채 시곗바늘이 놓이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쩔 줄 모르는 못말리지라도 평소보다 못 치르지 말아달라는 기도 같았다. 땅 짚고 헤엄치기 바라는 소박한 기도, 소리 없이 기도하는 여인의 등 너머로 시험을 알리는 종소리가 만중처럼 울려 퍼졌다.

야구장에서 응원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팬들은 목도 아프고 힘도 들지만 선수처럼 유니폼을 입고 다양한 응원 도구를 준비해서 열광적으로 소리치며 응원을 했다. 누군가를 위해 저리 온몸으로 자기 일처럼 응원할 수 있다니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하게 보이게조차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경기장에서 어느 팀이 꼭 이겨야 한다고 소리 내서 응원하는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치어리더의 현란한 율동에 따라 때장을 부르

고 때장을 부리며 열광하는 응원에 비하면 너무도 낮고 조용한 응원이었다.

행사 때마다 부르는 우리 애국가 역시 응원가 일종이고, 흥겹거나 슬플 때 혼자고 여럿이고 가리지 않고 부른 아리랑 역시 응원가의 대명사였다. 조선 창업을 찬양한 용비어천가나 석가모니 일대기를 그린 월인천강지곡 역시 붉은 악마들의 월드컵 응원가 못지않은 대국적 응원가였다.

그렇게 보면 우리 자주 응원가를 부르며 자랐던 것 같다. 학교 교가나 군가 모두 씩씩한 응원가였고, 틈만 나면 모내기나 보리밭기, 수해 복구 등에 동원되어 새마을 노래를 시시때때로 불렀다. 좀 우습지만 응원을 밥 먹듯 하면서 응원을 절로 익힌 셈이다.

오래전 일이다. 일찍 새벽 산책을 하고 있었다. 고층 어느 섬마을 서남당에서 노인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무거워 한참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어둠한 곳에 노인은 연신 허리를 굽혔다가 펴기를 반복하며 두 손은 부지런히 빌고 또 빌고 있었다. 그건 기도이기도 하고 응원이기도 했다.

그가 떠난 뒤에 나도 따라서 그 자리에 서 보았다. 그리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짙은 어둠, 좀 무서웠다.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그건 없는 게 아니었다. 거기엔 조상신도 하느님도 부처님도 삼신할머니도 모두 있었다. 어쩔 누군가의 한을 기도로 따뜻하게 덮어 주는 것 같았다.

교문 밖 여인이나 섬마을 노인의 바람, 소리 없는 기도는 바로 무엇보다 우렁찬 응원이다. 간절히 바라만 들어준다는 믿음이 없는 할 수 없는 외침이다. 크든 작든 마음의 발원이다. 응원받는 이의 일이 잘되도록, 응원원은 그에게 마음과 정성을 보태는 일이다.

첫걸음과 첫 등고, 첫 만남과 첫 충전 응원, 질문을 던져 놓고 정답을 기다리는 선생님의 응원, 혼련소에 들어가는 아들을 위한, 퇴원하는 부모를 위한 응원... 우린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가족은 물론 이웃 친척들의 응원을 받고 자라 왔다. 이런 응원은 실컷 외치는 응원가와 달리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고 더 힘이 있다.

어머니의 응원은 결코 처음이 아닐 성싶다. 어느 순간 아이는 어머니의 응원을 무심결에 혹은 우연히 나처럼 엿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머니의 응원에 꼭 보답하리라 믿는다.

누군가 자신의 등 뒤에서 진심으로 응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든든한 힘이 될 것이고, 그런 힘 그런 기도는 꼭 부응한다고 믿고 믿는다. 눈부신 응원, 조용한 기도 그리고 정직한 응답...

지금 내가 그나마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으니 이는 필경 누군가 묵정껏 응원해 준 덕분이지 싶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조용히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응원을 받는 이는 멋지다. 하지만 누군가를 응원하고 살아가는 삶도 잘 사는 인생, 훌륭한 삶이지 싶다.

기고

만산홍엽, 낙엽 다시 보기



민경우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시몬, 너는 좋이나?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은 날개 소리와 여자의 웃자락 소리를 낸다...”

프랑스 시인 레미 드 쿠르몽의 시 ‘낙엽’의 한 구절이다. 한여름 그 구성했던 나뭇잎이 하나 둘씩 낙엽 되어 떨어지고 있다. 떨어진 나뭇잎이 바닥에 뒹굴고 앙상한 가지들 보이던 우리들 마음도 덩달아 쓸쓸해진다. 울헤도 도심 거리의 단풍은 곱기만 하다. 하나 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한없이 낭만 속으로 빠져드는 20대 청춘. 같은 낙엽을 보고도 인생의 가을을 처절히 느끼는 50대 중년. 어디 그뿐이라. 눈 뜨고 나면 쌓여가는 낙엽을 바라보는 새벽 청소년의 심정은 또 어떻게인가?

이처럼 우리의 애증을 담고 있는 낙엽을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자. 무수히 나뉘는 낙엽을 한낱 귀찮은 쓰레기쯤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자원의 일부로 눈을 돌리자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의 부모 세대는 낙엽이며 뽕잎, 왕겨 등을 소나 돼지의 배설물 등과 함께 섞어 발효시킨 다음 식물을 재배하는데 훌륭한 퇴비로 사용되지 않았던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수거되는 낙엽은 30만 톤 정도라고 한다. 그중 절반 이상이 매립되거나 태워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낙엽의 재활용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외국의 사례로 미국에서는 한 식기 회사가 출시한 낙엽 접시 ‘베르테라’가 쓰레기 문제 해결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접시는 오븐에 써도 될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고 매립 후 60여 일이면 자연 분해되어 환경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스웨덴은 낙엽과 잔가지, 풀뿌리 등을 이용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여 석유 수요를 대체할 국가 과제라고 삼았다고 한다. 프랑스는 폐기물처리장에서 지렁이가 낙엽 등 정원 쓰레기를 먹어치우게 해 유기 농업용 지렁이 분변토를 만든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시가 낙엽 퇴비화 사업의 하나로 하루 30톤기량의 낙엽을 수거해 네 곳의 농장으로 보내고 있다. 한 농장에서는 이를 톱밥과 함께 버무려 2-3개월씩 숙성 발효시킨 뒤 소와 말의 먹이로 사용한다고 한다. 송파구에서는 은행나무 잎을 남이섬의 ‘송파 은행갈’에 보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

다. 또 경북 영덕군에서는 산림 부산물 명품 퇴비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퇴비 제조와는 차별성 있게 낙엽과 갈참·키티질 함유량이 풍부한 성계 액비 및 대개 짚질, 불가사리에도 발효균을 첨가해 특색 있는 고품격 명품 퇴비를 생산해 지역 특산물 생산 업체에 공급한다. 이로써 영덕 복숭아, 키토플 사과, 키토산 토마토, 영해 시금치 등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매년 16만여 그루의 가로수에서 약 1000여 톤으로 추정되는 낙엽이 수거되지만 주로 위생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어 아직 이렇다 할 재활용 실적은 미미하다. 광주 남구와 북구에서 일부 퇴비화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마저도 거리 담배공초 등 일반 쓰레기와 섞여 퇴비의 품질이 저하되어 농가 수요가 없는 탓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한다.

가로의 낙엽은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차량 바퀴에 분쇄되어 가루가 되면 우리의 호흡을 통해 폐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광주시에서도 삼천만 그루 나무 시계획과 더불어 시립수목원이 완성되어 가는 이즈음에,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매년 가로수에서 쏟아지는 낙엽을 어떻게 모으고 재활용하여 쓰레기 매립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社說

수능 마무리...수험생 진학·생활 지도에 만전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엿그제 마무리됐다. 이번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 다소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수능 이후에도 수험생들이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수험생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내내 마스크를 쓴 채 학교를 다녀야 했다. 답답함 속에서도 그동안 입시 준비에 매진해 온 수험생들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로 보낸다. 수능 이후 각 대학은 수시 논술고사나 면접고사 등을 통해 신입생 선별을 시작한다. 수험생들은 이에 맞는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 처지다. 수시 및 영시 입시 일정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학교의 고민은 수험생에 대한 진로 지도와 생활 지도에 모아진다. 입시 방법이 워낙 다양해 진학 지도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진학·진로 지도를 통

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능 이후 수험생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수능이 끝나면 고3 교실은 ‘파장 분위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일시적 긴장 완화와 심리적 해방감으로 자칫 탈선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물론 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 당국에서 대책을 세웠겠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일로 생각해 형식적으로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는 우선 안전사고 예방 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수능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수험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각오로 진로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들도 수험생들이 남은 대입 일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산학연 단지 기업 입주 지원 강화해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집적 단지) 분양률이 지난해 말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주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대에 머물러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운영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나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분양률은 92.8%였다. 이는 전국 혁신도시 평균 73.0%를 상회하며, 2019년 말보다 1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강원·경남·제주 혁신도시가 분양률 100%를 달성했고, 경북(52.8%)과 충북(35.7%)은 평균을 밑돌았다.

9부 능선을 넘어선 분양률과는 달리 나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실제 입주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분양 면적 38만 5000㎡ 가운데 지난해까지 40.5%인 15만 6000㎡만 입주했다. 전국 혁신도시 평균 47.2%를 밑도는 수준이다.

나주 혁신도시 산학연 단지에 대한 분양 수요는 기업체가 월등하게 많았다. 필지 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71.8%를 기업체가 분양받았고 지식산업센터(14.1%), 유관 기관(9.0%), 대학(2.6%), 의료기관(1.3%), 행정기관(1.3%) 순이었다. 반면에 전국 혁신도시의 기업체 분양 비율은 평균 46%였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나주 혁신도시가 올해도 조성 8년째를 맞았다. 그 가운데 산학연 클러스터는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전략산업과 기능적으로 밀접한 기업·대학·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혁신 성장의 거점이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지를 분할받은 기업·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 조기 착공을 이끌어 내야 한다. 미착공 기업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맞춤형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제1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컵’은 대한민국이 최초로 국제대회 정상이 올라 획득한 전리품이다. 이 대회는 1956년 9월 홍콩에서 한국, 홍콩, 이스라엘, 베트남 4개 팀이 참가해 열렸다. 한국은 풀리 그로 치러진 경기에서 2승 1무(승점 5점)로 정상에 올랐고 2위는 이스라엘,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한국은 1960년 제2회 서울 대회에서도 우승컵을 차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안컵 우승을 계기로 새 집행부를 꾸리고 조직을 정비해 한국 축구의 기틀을 다졌다.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의 토대가 된 축구 행정이 비로소 시작됐다.

한국 축구사를 대표하는 ‘제1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컵’은 실제 선수들이 들어 올린 우승컵이 아님에도 2012년 국가등록 문화재(493호)가 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1회 대회를 비롯해 초창기 우승국에게 우승컵을 주지 않았다. 대신 은(銀)으로 실물보다 작은 우승컵을 만들어 선수들에게 나눠줬다. 그중 유일하게 남은 게 문화재로 지정돼 현재 대한체육회 한국체육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한국 축구가 오늘부터 월드컵 16강 대장정에 돌입했다. 선수들의 축구화와 유니폼 등은 세월이 흐르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시아 축구대회 우승컵처럼, 지금은 단순한 스포츠 용품이지만 수십 년 세월이 지나면 문화재로 가치가 전환된다. 국가적으로 스포츠 유산을 챙겨야 하는 이유다. 광주·전남 체육회도 스포츠 자산을 찾아내고 보존할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선수들의 맘이 배인 물품을 바탕으로 지역 스포츠 역사를 조망하고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공간 하나쯤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